

[러시아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아제르바이잔, 유럽-아시아 교역로 역할 부상



최근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교역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인 BTK 철로 계획과 남부 가스 회랑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주요 중간 회랑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 역시 아시아와의 물류 이동과 에너지 수송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물류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향후 아제르바이잔과 유럽 간의 교역 증대가 기대되며, 국제교통 거점 지역으로서 아제르바이잔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제르바이잔-EU, 물류산업 관련 협력 회담 개최

지난 2월 17일 아제르바이잔과 유럽연합(EU)이 물류산업과 관련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교역로 역할을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잠재력 향상과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가 최우선으로 논의되었다. 회담에 참석한 아제르바이잔의 교통·커뮤니케이션·고등기술부(Transport, 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ies) 라민 굴루자데(Ramin Guluzade) 장관은 EU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및 EU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및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통한 범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Trans-Eurasian transport network) 확장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다”고 전했다. 유럽 위원회(EC) 역시 전략적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아제르바이잔의 물류 인프라 발전과 유럽과 아시아 간의 다양한 방식의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쿠 국제해양무역항(Baku International Sea Trade Port)의 성공을 언급하며 국제 물류 이동의 주요 거점지로서의 아제르바이잔의 부상을 강조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신식 철도차량 구매와 철로 인프라 개선 및 3세대 기술 스마트 운행 기록계 도입 추진 등 물류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럽연합은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 내 철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약 20억 유로(한화 약 2조 5,6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아제르바이잔, 유럽의 주요 운송 거점지로 부상

아제르바이잔은 BTK(Baku-Tbilisi-Kars) 철로, 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거점지로 부상하고 있다. BTK는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계획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지아의 트리빌시, 터키의 카르스를 잇는 철로 계획이며,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 이동을 위한 중간 회랑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부 가스 회랑 프로젝트는 카스피해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유럽의 에너지원 다각화를 위해 유럽연합은 남부 가스 회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은 아제르바이잔과 유럽을 잇는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아제르바이잔 교역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으로, 향후 운송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교통 거점 지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 출처

- Azernews, Transport issues high on agenda of talks between Azerbaijan, EU, 2019.02.19
- Azernews, European Commission ready to support major transport projects in Azerbaijan, 2019.01.21